

코로나발 금융위기 우려... 문 대통령, 대책 주문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 주제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전례 없는 고강도 대책을 주문한 것에서 현 상황을 바라보는 엄중한 인식을 읽을 수 있다.

2015년 중증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2002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유행 때와는 차원이 다른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섞인 판단이 묻어있다.

급성 감염병으로 인해 실물경제가 망가지는 차원의 단산적인 문제가 아닌, 실물경제 위기가 금융시장 위기로 전이되고,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퍼펙트 스톱(동시 다발적 악재에 따른 초대형 경제위기)'까지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통해 특단의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90분 간 청와대에서 경제금융상황특별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경제부처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까지 한 자리에 모은 것은 실물경제 활성화는 물론 금융, 통화 정책까지 가능한 모든 카드를 동원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회의에는 정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이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로부터 금융

시장 및 제반 경제 동향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경제 정책을 하는 분들은 과거의 비상상황에 준해서 대책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지금은 메르스, 사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비상 경제시국"이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그러면서 "과거 사례와 비교는 할 수 있으나, 그 때와는 양상이 다르고 특별히 전례 없는 일을 해야 할 상황"이라며 "정부는 과거에 하지 않았던 대책을, 전례 없는 대책을 최선을 다해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례 없는 대책"을 강조한 것은 과거 메르스와 사스 사태 당시의 국내 경제에 미쳤던 영향을 기준으로 삼아 현재의 코로나19 극복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는 새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해 감염병 최고 경보 수준인 '팬데믹'으로 선포한 이후 국내 증시는 물론 세계 증시가 급락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실물과 금융시장이 직격탄을 맞은 여파로 전날 코스피가 장중 1700선이 무너졌다. 이날은 코스닥 개장 직후부터 동반 폭락하면서 시장 매매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서킷브레이크가 발동되기도 했다.

일본, 중국, 홍콩 등 아시아 주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경제·금융 상황 특별 점검회의'에 참석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과거 사례와 양상 달라 전례 없는 대책 마련 최선" 사스·메르스 때와는 전혀 다른 흐름으로 전개 지적

증시도 큰 폭으로 하락했고,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과 미국 뉴욕 증시 모두 큰 폭의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 세계적 경제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전 세계 금융시장까지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코로나발(發) 경제 위기는 내수는 물론 제조업 중심의 수출 타격으로 실물경제를 직접 위협하고 있고, 금융시장까지 충격파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복합 위기로 번질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문 대통령이 "그 때와는 양상이 다르고 특별하다"고 언급한 것도 실물경제 중심으로 타격을 줬던 5년 전 메르스, 18년 전 사스 때와는 전혀

다른 흐름으로 경제 위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청와대 공개 회의에 처음 참석한 것도 전례 없던 특별한 대책 마련을 위한 준비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앞서 한은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간에 임시 금융통화위원회 개최 필요성에 대해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은이 금통위 개회를 통해 현재 연 1.25%인 기준금리를 0.25~0.50% 포인트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지난 3일 예정에 없던 긴급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전격 인하한 바 있다. 한은은 2008년 10월 미국발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서 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임시 금통위를 열어 금리를 사상 최대 폭인 0.75% 포인트 인하했고, 2001년 9월 '9·11 테러'로 국제정세가 불확실성이 커졌을 때도 0.5%포인트 낮춘 바 있다.

앞선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중국은 '세계의 생산 공장'이자 '세계의 소비 시장' 역할을 동시에 하면서 연 9~10% 고속성장을 계속해 왔다. 이를 기반으로 장기 침체에 빠진 전 세계의 경제 회복세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중국에서 촉발된 현재의 위기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상황으로 여파가 더 강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문 대통령이 '전례 없는 상황'을 언급한 것도 이러한 배경 위에서 풀이된다. /뉴스

"새 급식 프로그램 '오류투성이'에 불과"

박용근 도의원, 5분 발언서 "교육부 개발 프로그램 알레르기 정보 등 잘못된 내내 영양교사 문제점 제기"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근(행정자치위원회, 정수군)의원이 지난 13일 제3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외면하는 교육행정을 질타했다.

박용근 의원은 '교육부가 개발한 새 급식 프로그램이 부정확한 영양량, 잘못된 알레르기 정보 등 오류가 많아 도내 학생 건강을 위협하는 엉터리 프로그램'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시 전북도내 영양교사 등 256명이 이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시행 철폐를 요구하며 서명까지 했지만, 교육청은 엉터리 급식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확인도 하지 않고, 절대다수의 영양교사들이 왜 반대하는지 의견을 묻지도 않은 채 내부 협의를 통한 결론을 교육부에 제출했다.'며 이는 학교급식에 대한 기초지식과 학생들을 위한 고민이 전혀 없는 결정이었다고 비판했다.

박용근 의원은 "소통 부재와 고민 없는 교육행정으로 인한 피해는 모두 학생들이 뒤엎 수밖에 없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 되지 않아야 하며, 행정직 사무관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급식담당 직위를 급식담당 장학관이 맡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김진성 기자

4·15 총선 예비후보자 이모저모

김광수,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안전 지킴이' 나서

민생당 김광수 예비 후보(전주갑)는 지난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지역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전주 인후동 아중지구 일원에서 방역활동을 펼치며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 지킴이'로 나섰다



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간사와 코로나 추경 예결특위 간사로 활동 중으로 이날 전주시 인후3동 새마을협의회와 함께 인후동 아중지구에 위치한 공원과 상가 방역활동을 펼쳤다. 김 의원은 "국가적 위기인 코로나19로부터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 여러분과 함께 방역활동에 나섰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역 방역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배수연 "후보자 합동 정책 공개토론회 갖자"

무소속 배수연 예비 후보(익산을)가 합동정책 공개토론회를 제안하고 나섰다. 배 예비후보는 최근 "코로나19으로 인해 시민 일상생활이 대단히 불편하게 됐다"며 "이는 정치 신인들이 미전까지다"라며 토론회를 제안했다. 그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후보자들은)유권자에게 알릴 기



회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본다"며 "이대로 선거를 한다는 것은 자칫 후보자의 공약도 모른채 해야할 가능성이 크다"며 토론회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알려드릴 수 있는 토론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권자들에게 알리기를 충족 시켜주기 위해 후보자들의 합동정책 공개토론회 개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이용호 "남원 1천만 관광객 시대 열 것"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난 13일 4·15 총선 남원지역 공약 제1호로 "1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남원은 오랜 역사와 다채로운 전통문화, 천혜의 자연이 어우러진 도시로 관광지로서의 잠재력이 매우 풍부하다"며, "구슬이 서 말이어도 껍어야 보배"라



는 말처럼 남원 곳곳에 널려있는 매력과 자원, 현안 사업을 한 데 엮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공약은 ▲지리산 친환경전기열차 도입 ▲국악 상설공연장 건립 ▲역사문화도시 복원 ▲역사문화 체험 투어 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SOC 사업 예산을 확보해 남원을 변화시켜 왔는데, 이제는 지역 현안들을 개별 사안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큰 구상과 계획으로 남원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